

폭격현장 민간인 2명 사망 확인

형체 알아볼 수 없게 훼손...전사 2명 무공훈장·1계급 진급 추서

北, 연평도 포격 ▶2·3·4·5·6·9면

지난 23일 북한군의 연평도 기습 포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2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0분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관사 신축 공사현장에서 김치백(61·인천 가정동)·배복철(60·주소 미상)씨 등 남자 인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전날 북한군이 쏜 포탄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을 수색한 경찰에 따르면 사고 현장은 2발의 포탄이 약 5m 간격으로 떨어진 것처럼 움푹 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 1구는 포탄이 터진 곳에서 약 5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고, 다른 시신 1구는 2~3m 앞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훼손되고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의 한 건설업체 소속인 이들은 모두 연평도 주민이 아닌 외지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시신은 해경 특공대원들의 피해현장 수색과정에서 발견돼 수습됐다. 앞서 해병대는 전날 북한군이 쏜 포탄이 공사현장으로 날아와 작업 중이던 인부 12명이 대피했으나 이중 10명은 생존을 확인했으나 2명은 실종 상태라고 연평면사무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해병 전사자 2명을 포

함해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고, 해병 15명과 민간인 3명 등 18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 관계자는 “애초 중상자로 분류됐던 박봉현(21) 일병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돼 부대로 복귀했고, 경상자로 분류됐던 이민욱 일병



북한의 연평도 기습 포격 하루 뒤인 24일 오후 옹진군 연평면의 주택들이 포격으로 인해 파괴돼 있다. /연합뉴스

이 부상 상태가 심해 중상자로 재분류됐다”고 밝혔다.

해병 중경상자 15명은 국군 수도병원으로 후송해 치료중이며, 수도병원 측은 “중상자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인명피해 외에 병사들의 생활관과 헌병대, 의무소대, 식당 등 부대내 시설 12곳과 민간인 건물 18개동이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파괴

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해병대 사령부는 전날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전사한 광주출신 고(故) 서정우(21·해병 1088기) 병장과 전북 군산 출신 문광욱(20·해병 1124기) 이병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하고, 1계급 추서 진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해병대는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하고 유족이

동의하면 5일 장모로 오는 27일 전사자 장례식을 거행하려 했지만, 유가족들이 사망원인을 명확히 알기 전까지는 장례절차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합동분향소에는 국회 국방위원장 원유철 의원, 전 국방장관 김장수 의원,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 정치권인사들과 군 관계자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연합뉴스

대응포격 자주포 2문 고장났었다

軍 허술한 대응 논란...이대통령, 교전수칙 검토 지시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우리군이 허술하게 대응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북한군이 170여 발의 포 사격을 가했는데 대응사격은 그 절반인 80발에 그쳤고, 북한군의 해안 포진지를 제대로 타격하지 못해 북측의 지속적인 사격을 허용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또한, 연평부대에 있는 K-9 자주포 6문 가운데 2문이 고장 나 4문으로만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방부의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170여발의 포격을 가했고 이중 80여발이 연평도에, 90여발이 연평도 인근 해상에 떨어졌다. 우리 측은 포격을 가한 북한군의 무도 및 개머리 포 진지에 K-9 자주포로 80발을 응사했다.

교전수칙에는 2배로 응징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지만, 통상적인 군의 작전지침으로 통용되는 ‘2배 이상 대응사격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셈이다.

우리 측의 대응사격이 북한의 포격이 시작되고 나서 곧바로 이뤄지지 않고 13~14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군은 이에 대해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가 해상 사격훈련에 참가 중이었고, 자주포 배치 지역에 포탄이 떨어지고 있어 일단 대피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군 당국의 논리대로라면 연평도의 K-9 자주포 배치 지역에 포격이 계속 이어지면 대응사격을 할 수 없게 된다. 포격이 실시되고 있는 해안포진지를 직접 타격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안 절벽지대에 배치된 북한군의 해안포 진지를 타격하기 위해 비상출격한 KF-16이나 F-15K가 정밀타격을 해야 한다는 지

적도 있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장관은 “(대응시) 전투기로 공격했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하면서 교전규칙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

의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국지도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방향으로 교전수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권일기자 cki@연합뉴스

의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국지도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방향으로 교전수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권일기자 cki@연합뉴스

당신만을 위한 비즈니스 호텔

- 런치 스페셜 - 해물지리탕, 추어탕, 육개장
- 특선해물뷔페 - 35,000

예약문의 (062) 227-8500

www.hiddinhotel.com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12월 1일~1월 7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우람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 전남과학대학

새롭다, 즐겁다, 뉴질랜드 어학연수

12월4일 오전 10시 설명회...광주일보 16층 회의실



뉴질랜드 정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현지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는 정통 영어 어학연수에 글로벌시대의 꿈나무들을 초대합니다.

광주일보는 뉴질랜드 어학연수 전문기관인 뉴질랜드교육문화원(NZLES: New Zealand Life Education Service, www.nzles.com)과 공동으로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1년 2월 4주간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실시합니다.

이번 어학연수는 기존 '해외외향' 연수가 아닌, 새학기를 시작하는 뉴질랜드 학생들과 현지 학교 교실에서 매일 정규수업을 받으면서 체계적인 영어실력을 키우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또 현지 학생들의 집에서 매일 숙식하는 홈스테이를 통해 영어권 문화를 체험하면서 실용영어를 동시에 익힐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특히 홈스테이 담당자와 비상연락망을 갖춘 24시간 연수생 보호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어 어느 연수프로그램 보다 안전하게 운영됩니다.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최: 광주일보사
- 주관: NZLES·AK WORLDLINE
- 연수기간: 2011년 1월30일~2월26일
- 신청마감: 12월 10일
- 문의: (062) 220-0641

光州日報社

광주시-교육청 '문구 검색' 이전 무상급식 업무 협약 결렬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무상급식과 관련한 업무협약 체결이 사전논의과정에서 '문구 검색' 문제로 결렬됐다. 표면적으로는 문구 문제였으나 무상급식을 전면에 내세운 강연대 광주시장의 시작차가 그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는 24일 “강연대 광주시장과 장휘구 광주시 교육감이 오는 25일 광주시장에서 무상급식 실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실무진 논의과정에서 무산됐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논의과정에서 협약 내용에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을 50대50으로 규정할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나섰으나 광주시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협약서에 강연대 시장의 공약에 따라 2013년까지 무상급식 실

현을 위해 양 기관이 노력하자는 내용을 포함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시교육청은 분담비율을 규정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장이 선거공약대로 무상급식을 위한 110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광주시교육청에서 중등학교까지 포함해 50대50 비율을 강요했다”며 “이렇게 되면 당장 2012년부터 45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데 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시가 무상급식 협약서에 분담비율을 5대5로 하는 문구를 넣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광주시에 이를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다소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HAPPINESS COUNTRY CLUB
www.happinesscc.com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VIP 1차정회원
 분양예정
 (3억5,000만원)

해피 정회원 모집

- 위치: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219 번지
 - 코스규모: 총 27홀 Par 108(전장 9,575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 모집인원: 100명 ■ 분양금액: 1억
 - 정회원 특전
 1. 공통: 정회원 그린피 면제 /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2. 선택: A형, B형 중 택일
 - A형: 지정회원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1인 준회원대우,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할인혜택 (10% 전후)
 - B형: 지정회원 미신청시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우대혜택 (20% 전후)
 - 입회금 납부안내
 1. 계약금 20% 납입 후 30일 이내 잔금완납 (단위: 만원)

구분	입회금액	납입 방법	
		계약금	잔금
해피정회원	10,000	2,000	8,000

 2. 납입계좌
- 광주은행 001-127-012066 / 예금주: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광주은행 담보대출 70%선(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가능)
- 가입문의 Tel. 061-330-5001~5 Fax. 061-330-5009